

생강나무



최명섭 입업연구원

- ▶ 과명 : 녹나무과
- ▶ 학명 : *Lindera obtusiloba*
- ▶ 영명 : Japanese Spice Bush
- ▶ 한명 : 黃梅木
- ▶ 일명 : だんこうぽい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뜰을 비롯한 울타리 우물가등 조그만 빈터만 있어도 생강나무를 심었다. 이른봄에 피는 노란꽃과 가을에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열매도 아름답지만 잎과 가지에서 생강냄새를 풍겨 집안분위기를 향긋하게 바꿔놓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색창연(古色蒼然)한 고가(古家)에는 한 두 그루의 생강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유익한 나무는 가까이 심고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나무는 멀리심는 지혜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봄 꽃이 핀다하여 영춘화(迎春花), 바위틈에도

잘 자란다하여 석한죽(石寒竹), 한방에서 건위제(健胃濟), 복통(腹痛), 한열(寒熱)등의 약제로 쓰인다하여 황매목(黃梅木), 열매를 머릿기름 대신으로 쓴다하여 동백나무등으로 불리는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드나 일부 지방에서는 정원수로 즐겨심고 있다.

잎과 가지에는 방향성(芳香性) 정유(精油)를 함유하고 있어서 상처를 입으면 생강냄새가 난다하여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 생태적 특성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3m정도 자라며 수직적으로는 표고 100~1,600m까지 자라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내음성이 있어서 숲속의 나무 그늘 밑에서도 잘 자라며 추위와 건조에도 강하고 내조성(耐潮性)도 강하여 바닷가에서도 잘 자란다. 야생의 경우 계곡, 개천가, 바위틈 등에서 자라기를 좋아하나 다른 수종과의 화합성도 강해 참나무, 소나무숲에서도 잘 자란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계란모양의 원형으로 길이 5~15cm, 넓이 4~13cm로서 윗부분이 3~5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는 빛밋하여 뒷면에 긴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1~2cm로서 털이 있다. 꽃은 2가화로서 3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자루가 없는 산형화서에 달리며 양상한 회갈색 줄기에 노란꽃이 달려 산야의 봄을 제일 먼저 알려준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mm이며 녹색으로 달려 황색, 흥색으로 변하여 9월에 검은색으로 익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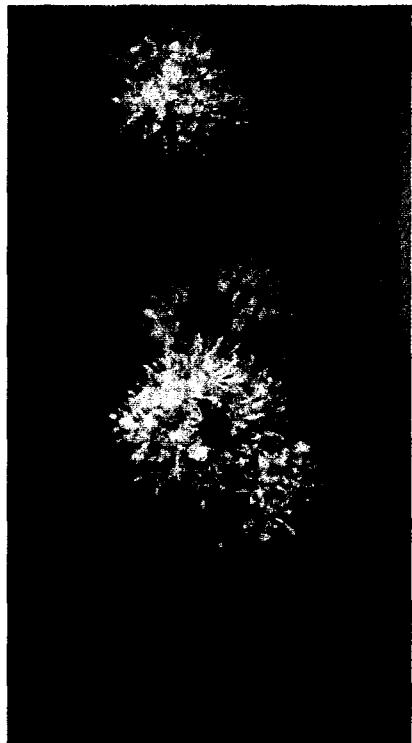
유사종으로 잎이 전혀 갈라지지 않는 것을 둥근잎생강나무(*for. ovata* T. Lee), 끝 부분의 잎이 5개이고 중앙부의 것은 3개로 갈라지며 밑부분의 것이 계란의 형태에 가까운 둥근형인 것을 고로쇠생강나무(*for. quinquelobum* Uyeki), 잎 뒷면에 긴 견보(絹毛)가 있는 것을 털생강나무(*for. villosum* Nakai)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이른 봄 영춘화(迎春花)로서 이름다움을 주고 오색찬란한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고 가을 황색 단풍도 아름다워 가정이나 공원에 식재할 만하다.

3월에 들어서면서 히어리와 같이 노란색 환한꽃을 잎도 피우기전에 응기 종기 피운다.

야생상태에서 자라는 성향을 보면 주로 계곡 개천가 바위틈등에서 자라기를 좋아하나 다른 수종과의 화합성도 좋아 소나무나 참나무류의 수하에 군식해도 잘자라며 대기오염이 심한 도심이나 해변가등에서도 잘자라며 이식력도 좋아 식재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넓다고 하겠다.



4. 번식법

●종자번식

유용한 수종일수록 번식이 까다로운데 생강나무 역시 번식이 어려운 편이다. 9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겉에 있는 과육의 기름기를 벗겨 씻은후 모래와 흙을 반반으로 섞어 화분에 넣어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7~8월에 새싹이 돌아난다.



●삽목번식

지난해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20cm 길이로 잘라 2/3정도 물하게 꽂는다. 삽목상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해야 하며 안개분무 시설이 있는 특수한 삽목상에서만 번식이 가능하다.

5. 그 밖의 용도

이른 봄에 피는 새순을 따모아 차(茶) 대용으로 하는데 작설차(雀舌茶)라 하며 5월경 부드러운 잎을 따모아 찹살가루나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기면 생강냄새가 풍겨나는 튀김요리가 되고 9월에 익는 열매는 그대로 식용할 수도 있고 종자를 모아 기름을 짜서 예전에는 머릿기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경수**